금주의 법구-〈장로게경〉
많이 배운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배운 것을 잊지 말라.
이것이 진정한 삶으로 가는 길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4월 8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46호 2017년 5월 3일 수요일



불기2561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불자들의 염원이 한데 모아졌다. 1년간 정성스럽게 봉축장엄등을 만든 불자들은 4월 29일 진행된 연등회 제등행렬에 참가해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했다. 사진은 제등행렬서 한마음선원 학생회 아버지들이 청년회원들과 함께 만든 부처님 등을 즐겁게 끌고 가고 있다.

'인간 평등' 메시지, 10만 연등에 담다

4월 29~30일 연등회 봉행… '차별 없는 세상' 발원

남녀노소 30여만 명 종로 운집
장애인 · 외국인 참가자 늘어나
전통문화마당엔 힐링체험 각광
"환한 얼굴이 세상 밝히는 등불"

길거리를 수놓은 10만 연등불빛 아래 만중생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너와 나 둘이 아닌 '동체대비' 평등사상이 사회 곳곳에 전해졌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 이하 봉축위)가 4월 29~30일 서울 종로 일대서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불기2561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는 예년보다 더욱 다양한 계층의 참가자들이 몰려 화합을 기원해 눈길을 끌었다.

29일 저녁 봉축행사의 가장 큰 볼거리인 연등행렬에서는 남녀노소, 장애인 · 비장애인, 외국인 등 30여만 명의 참가자들이 등을 환히 밝히며, 하늘 위 · 하늘 아래 모든 존재가 존귀함을 강조하신 부처님 가르침을 다시금 떠올렸다. 특히 장애가족을 돕는 승가원과 시각장애인을 지원하는 연화원,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등 각종 복지단체 · 사찰을 비롯해 미얀마 · 네팔 · 스리랑카 · 베트남 · 태국 등 세계불교단체가 함께해 '더불어 사는 사회'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회가 됐다.

올해 연등행렬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장엄등과 캐릭터등, 개인등 등 다양한 등이 길거리를 장엄했지만 그 중에서도 부처님 얼굴에 영상모니터를 달아 아기사진을 번갈아가며 보여준 조계사 장엄등이 압권이었다. 아울러 부모들이 유모차를 끌며 연등행렬에 동참해 미래세대 포교 위기에 처한 한국불교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2시간가량 진행된 연등행렬에 이어 종각 특설무대서 열린 회향한마당은 부처님 탄생을 찬탄하는 축하공연과 화합을 도모하는 강강술래, 대동율동 등이 펼쳐져 환희로 가득 찬 사바세계를 연출했다. 불자국악인 남상일 씨의 사회아래 울려 퍼진 연등회의 노래와 대미를 장식하는 꽃비는 행사장 일대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같은 날 오후 동국대 대운동장서 개최된 어울림마당에서는 각 사찰 어린이 · 청소년 · 청년 연희단 30여 팀이 다채로운 봉축율동을 뽐냈다. 이후 거행된 봉축법회서는 모든 이들의 행복을 염원하는 대규모 의식이 펼쳐졌다.

이 자리서 봉축위원장 자승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마음의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고자 서로 맞잡은 손으로 등불을 높게 들고 힘차게 걸어가고 있다. 심성으로 밝힌 빛은 내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바로 곁에 이웃이 있다는 것을 느끼며 서로 기대고 어우러져 있음을 깨닫게 한다"면서 "환한 얼굴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가장 밝은 등불이 돼준다. 이를 통해 행복과 여유를 나누는 것이 더없는 덕행을 이루는 것임을 배우고, 진솔한 마음으로 내가 곧 삶의 주인임을 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온 국민이 행복하고 온 국토가 평안한 가운데 지구촌의 평화를 이끌어 가는, 무한생명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모두"라며 "모두가 행복하고 상부상조하며 상호 존중하고 감사하는 평화로운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사부대중은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이 대표 봉독한 발원문서 "나와 남을 구별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애착심을 버리고,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며 화합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과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는 각각 기원문을 통해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사회 어두운 곳에 자비광명을 밝혀 서로 존중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것을 서원했다.

30일에는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130여 불교관련 체험부스가 설치된 전통문화마당이 펼쳐졌다. 올해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정목 스님 토크콘서트와 참선 · 명상 · 심리상담 등 다양한 힐링체험이 각광받았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마련된 청춘마당에서는 애니메이션과 컬러링, 불교 티셔츠 제작 등이 새롭게 선보였으며, 사찰음식코너에서는 7개 사찰이 각기 다른 사찰음식을 만들어 체험객들에게 제공했다.

〈봉축 화보 A16 · 17면〉

글=윤호섭 기자 · 사진=박재완 객원기자

[커버스토리] 차별금지법, 차별 없는 세상 첫 걸음

우린 모두 부처일진데 누굴 차별할 수 있는가



그림 · 최주현

얼마 전 한 한국인이 뉴욕의 지하철역에서 백인 남성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어깨를 부딪쳤단 이유만으로 한국인은 백인으로부터 피가 철철 나도록 수차례 맞아야만 했다.

같은 한국인으로서 분노의 감정이 샘솟았는가? 이 이야기는 사실 뉴욕이 아닌 지난해 7월 1호선 양주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때린 사람은 백인이 아닌 50대 한국인 남성이고, 맞은 사람은 한국인이 아닌 미얀마 노동자다. 맞은 사람이 한국인이 아니란 사실에 분노가 사그라졌다면 그것이 바로 차별적 감정이다.

우리 사회에 차별이 얼마나 만연한지는 오래 생각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키가 작아서, 외모가 잘나지 않아서, 장애가 있어서, 출산한 여성이라서, 조금 여성스러운 남성이라서, 국적이 달라서 등 차별받는 이유가 수두룩하다. 이 중에서 당연히 차별받아야하는, 또 차별받아도 되는 사람이 있을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탄생게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이라 외쳤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이 그대로 존귀하다는 인본주의의 천명이다. 차별적 신분제도인 '카스트'가 지배한 인도사회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평등사상을 깨친 것이다.

이러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현재 한국불교는 '차별 없는 세상'을 발원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차별 없는 세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자승 스님은 봉축사에서 "세상의 풍요를 위해 땀 흘린 노동자의 옷깃에서,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기업가의 열린 미소에서, 자연과 더불어 뿌린 대로 거두는 농민의 손길에서, 상처받은 이웃을 얼싸안은 시민들의 아름다운 품에서 우리는 부처의 세상을 본다"며 "가정과 일터, 거리와 사회에서 차별을 없애고 모든 이들을 부처로 대하는 것이 우리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이제는 불자들이 답할 차례다. 차별 없는 세상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차별 있는 세상의 '적'으로 남을 것인가.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차별치 않는 세상을 만들어갈 열쇠는 우리 모두가 쥐고 있다. 본지는 봉축 특집 '차별금지법, 차별 없는 세상의 첫걸음'을 통해 그 답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련 특집 기획 A3~5면〉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2017년 봉축특집호 섹션 A32 · B20 · C16면 발행
선지식에게 듣다 – 활성 스님 A7 | 특집 · 리더십, 위기서 빛나는 해법 A11~13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불기2561(2017)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같이

종정 진제 법원 총무원장 자승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